韓國心理學會誌 : 相談과 心理治療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7, Vol. 9, No. 1, pp. 289-310.

대학생의 내·외적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의식성숙에 관한 연구

이 현 림
영남대 교육학과

진로의식은 일순간에 성숙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의 발달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진로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와 기능은 어릴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이르러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의식 발달이론은 모든 연령층의 발달특징과 발달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포괄적이며, 또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선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진로의식성숙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측정하여 적절한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은 진로의식 성숙에 필요한 경험과 정보부족, 그리고 부모, 학교로부터의 적절한 진로지도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 발달단계에서 이룩해야 할 과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느 한 순간에 진로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학교성적, 장래의 교육계획, 부모의 학력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도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하여 일의 가치관과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의식성숙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일에 대한 가치 척도에서 선행연구와는 달리 성역할에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를 활용하고, 일에 대한 가치관을 꾸준히 평가한다면, 진로선택에 대한 전통적인 남녀차별의 지양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연구결과 진로의식성숙 척도의 하위영역에서 대학생들간의 학년차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이 비교적 같은 수준의 진로발달 단계에 속해 있음을 대변하여 준다.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학교성적, 장래 교육계획,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수준)과 진로의식성숙 간의 연구에서 이들 변인들이 성별, 학년별 분석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

* 이 논문은 1995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육성과제 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계획은 일순간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의 발달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진로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와 기능은 어릴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이르러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의식 발달이론은 모든 연령층의 발달특징과 발달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포괄적이며, 또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선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진로의식 발달수준을 뜻하는 진로의식 성숙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측정하여서 적절한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은 진로의식 성숙에 필요한 경험과 정보, 그리고 부모 또는 학교로부터의 적절한 진로지도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 발달단계에서 이룩해야 할 과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느 한 순간에 진로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그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생활양식은 물론 가치관과 태도까지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Tolbert, 1974).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는 학문 및 직업세계의 영역에 있어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를 탐색, 준비, 결정하도록 도와 주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예비 사회인으로 간주되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진로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이 현 사회의 구조적 및 제도적 영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등의 개인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공학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합격위주 혹은 출세우선주의로 대학에 진학한 결과, 자신의 전공과 적성 간의 불일치나 전공학과의 불투명한 취업전망 등의 이유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학과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학업과 진로문제라는 많은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실제적으로도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직업을 갖는 것은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사회적 인정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고자 함에 있는 것이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일순간에 고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정을 거치는 발달단계가 있다(이현림, 1977). 이에 대학생은 발달단계로 볼 때 청소년기에 해당되며, 청소년들은 한 인간으로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세계를 개척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위를 탐색하는 시기라는 발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 사회에서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진로지도는 진로발달 이론의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이현림, 1994). 이러한 입장에서 진로선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고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이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복잡하게 변천하는 사회구조와 직업구조, 기술구조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의 일차적인 발달과업 중 하나는 직업적인 정체성의 탐색 및 형성이다.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관은 한 개인이 직업에서 추구하는 구체적인 특성이나 보상을 의미하며(Pryor, 1981), 또한 직업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일에 대한 가치관은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간주된다(Katz, 1963; Rosenberg, 1957; Vondracek, Lerner, & Schulenberg, 1986). 또 Gable과 Pruzek(1971)는 미래사회에서 진로결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바로 가치측정의 영역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일에 대한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욕구의 외적인 표현(Katz, 1963)과 직업탐색을 위한 준거체제(Super, 1970; Zytowski, 1970)로 정의되며, 한 개인이 일에 관련된 사항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Dawis & Lofquist, 1984). 또한 인간이 일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는 그 시대의 전통적 사고방식, 사회구조, 생활방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일의 가치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을 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가지게 되고, 일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와 명성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역할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일의 가치는 인간에게 있어 생계유지 및 자아실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Super, 1970).

대학생들은 진로발달 단계의 탐색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는 일에 대한 가치관의 분류(Ginzberg, Ginsberg, Axelrad, & Herma, 1951; Super, 1984)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양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은 동시에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Pucel, Nelson, Hetzman과 Wheeler(1972), Walls와 Gulkus(1974)의 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의식 성숙 간에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iller(1974)의 연구에서는 일의 외적 가치관과 진로의식 성숙 간에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 일의 내적 가치관과 진로의식 성숙 간에는 약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rummond(1977)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직업에 대한 만족은 직업의 외적 가치 지향성보다 내적 가치 지향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de와 Peterson(1977)은 일에 대한 가치관이 외적 영역에서 내적 영역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uper와 Overstreet(1960)는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상관관계의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학교성적, 장래의 교육계획, 부모의 학력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도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하여 일의 가치관과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일의 가치에 관한 이론

일이란 여러 가지 의미 즉, 관직상의 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의 종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종사하는 일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이란 인간만이 수행하는 독특한 행위로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행동이며,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의도적 개조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이정근, 1989). Rosenberg(1957)는 일이라는 것이 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일 혹은 직업을 신으로부터 인간이 받은 소명 혹은 인간이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 불리움을 받는다는 뜻의 직업(vocation)과 인간이 보수를 받기 위해 정해놓고 종사하는 일이라는 뜻의 직업(occupation)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러므로 일이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그 직업생활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과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실현하며 국가사회의 성장을 위한 진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치와 가치관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가치와 가치관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보면, 정범모(1975)는 가치란 행동방향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고, 가치관이란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행동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가치가 적용되는 행동장면의 내용을 아주 넓게 잡을 경우 가치 보다는 가치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가치와 가치관은 적용하는 행동장면의 범위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Kluckhohn(1962)는 가치란 이용 가능한 행동의 목표, 수단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이하게 소유하고 있는 소망 대상에 대한 외현적 또는 내재적인 개념이며, 가치관은 자연속의 인간의 위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반적이고 조직화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일에 대한 가치관은 직업과 관련하여 한 개인을 기술하는 가장 중요한 범주의 하나이며(Dawis & Lofquist, 1984; Post-Kammer, 1987; Roe, 1957),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Carruthers, 1968). 또 Ginzberg, Ginsberg, Axelrad와 Herman(1951)도 역시 개인의 가치관 즉, 일에 대한 가치는 진로발달과 진로선

택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의 하나임을 역설했다. 이와 같이 일에 대한 가치관은 특정 일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의 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하며, 개인이 일의 어느 측면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는가의 문제이다.

일에 대한 가치관의 영역을 살펴 보면 먼저 Centers(1949)는 일 가치의 영역을 권력, 자아표현, 존경, 안정, 이익, 독립, 지도성, 사회봉사, 명예, 흥미성 등의 10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또 Rosenberg(1957)는 일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자기표현적 지향, 인간 지향, 외적 보수 지향 등으로 구분하였다. Ginzberg(1951)는 외적(경제 및 위신), 내적(직업활동 자체), 부수적(사회적, 환경적)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Super(1957)는 내적 영역으로는 이타주의, 창의성, 독립성, 지적자극, 심미성, 성취, 경영관리를, 외적 영역으로는 생활방식, 안전성, 명예, 경제적 보수를, 부수적 영역으로는 환경조건, 협동, 감독과의 관계, 다양성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Ginzberg와 Super의 분류는 각각 제한점을 지니고 있는데, Ginzberg의 분류는 너무 범위가 넓어 서로 독립된 영역을 한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Super의 분류는 너무 세분되어 구분이 애매한 점이 있다. 이에 Miller(1974)는 일에 대한 가치관을 외적 영역과 내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외적 영역에는 협동성, 경제적 보수, 독립성, 명예심, 안전성, 감독과의 관계, 환경조건, 다양성, 생활방식 등으로 구성되고, 내적 영역은 성취성, 이타주의, 창의성, 심미성, 지적자극,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2. 진로발달 이론

진로발달에 있어서 가장 최초이며 기본적인 접근은 20세기초 Frank Parsons(1909)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 접근법은 관찰에 의한 자료와 개인이 진로탐색에 관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에 조화하려고 하는 원리에 기초한다. 이 직업적 선택과정은 Parsons에 의하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 (흥미, 태도, 능력, 야심, 자원, 그리고 한계)의 측정이다. 그 다음 단계는 직업의 요구, 근로조건, 기회 그리고 고용조건 등의 탐색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특성과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제 조건을 분석하여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후 Williamson의 특성요인 이론, Gelatt와 Hilton 등에 의한 의사결정 이론, Miller와 Form 등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 이론 등을 비롯한 많은 이론들이 개발되었는데, 학자들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 조금씩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진로발달 이론은 Ginzberg, Ginsburg, Axelrad, 및 Herma (1951), Super(1953, 1957), Tiedeman(1961) 등에 의해 대표된다. 1950년대 이후 직업의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다는 일회적 행위라는 개념에서, 진로는 일생을 통해 발달해 나간다는 발달적 과정으로 보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즉, 개인은 다른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과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된다는 것이다(Upton, 1982; Zunker, 1994).

Roe(1956)는 진로지도에 대한 발달론적 과정의 영향을 고려하여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인성이론을 적용했다. Roe에 의하면 개인의 직업적 선호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유전인자 그리고 개인의 특별한 욕구 구조의 강렬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만약, 한 개인이 주의깊게 자신의 어린시절의 경험과 자신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인식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확한 직업형태를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Osipow, 1968).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요인과 좀 더 광범위한 개인행동 양상을 설명해주는 한층 더 복잡한 접근은 Holland의 진로유형 이론이다. 이 이론에 기초를 둔다면, 직업선택은 유전, 문화적·개인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그리고 개인이 환경에 대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습관적인 방식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Holland, 1964).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개인은 그 자신의 적응 방향을 나타내주는 '자신의 적응 패턴'에 의해 성격화 될 수 있는 것이다. Holland(1973)는 개인의 적응방향이 현실적, 지적, 사회적, 전통적, 기업적, 예술적인 여섯개 형태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여섯개 직업 환경은 개인의 개성에 일치되고 조화하면서 존재한다. 개인의 개성과 직업적 환경이 서로 부합되었을 때, 직업선택은 비교적 인성의 표현에 적합하게 된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적응방향을 보상해 주는 환경에 이끌리게 마련인 것이다.

진로선택과 직업수준에 대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은 진로패턴의 사회요인 이론을 발전시킨 Miller와 Form(1951)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그들은 근로자의 직업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버지의 직업 둘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정배경 셋째, 아버지의 수입과 교육정도 넷째, 경제적인 도움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그리고 다섯째, 사회적·경제적 상태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동기와 내적능력이 결합하는 이들 사회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비중은 한 개인의 진로유형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Ginzberg, Ginsburg, Axelard, 그리고 Herma(1951)는 경험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예언가능한 직업 선택의 패턴을 제의했다. 그들의 이론은 특정한 시기 동안의 성숙단계를 나타내 주는 발달과업의 개념에 기초한다. Ginzberg는 1952년에 그의 이론에서 다음의 세 가지 기본요소를 제시해 준다. 첫째, 진로선택은 하나의 과정이다. 둘째, 진로선택의 과정은 비가역적이다. 셋째, 타협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측면이다. 그후 20년간의 연구결과로 Ginzberg와 동료들은 세 권의 책을 발간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발견에 기초해서 Ginzberg는 1952년의 직업선택 이론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첫째, 진로선택이란 한 개인이 일과 진로에 대해서 결정하기를 기대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한 존재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은 일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젊은이들이 성공적인 진로결정을 하려면 준비시기가 미래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들은 일과 일상생활에서도 계

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람들은 일의 세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우선적인 필요, 욕망, 기회, 그리고 제한들 사이에서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한 것을 찾고 그들의 낙관적인 만족을 통해서 일과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Ginzberg, 1972).

진로발달의 가장 유력한 이론은 Super의 이론이다. 진로발달에 있어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Super는 기존 이론들의 단점을 비판하고, 보완하는 입장에서 당시의 진로선택 및 진로발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분석하고, 종합하여 보다 발전된 이론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Super는 1953년 논문에서 이론의 근거로서 10가지의 가정을 제시하였고, 1957년 그의 저서에서 2가지 가정을 첨가하고, 마침내 1990년 논문에서는 14가지의 가정으로 확대시켰다(Super 1990; Isaacson & Brown, 1993). Hall, Büehler, Lazarsfield, Ginzberg, Super와 같은 발달이론가들은 발달단계를 성장기(출생에서 14세까지), 탐색기(15세에서 24세), 확립기(25세에서 45세), 유지기(46세에서 65세) 그리고 쇠퇴기(66세 이후)로 구분하였다.

대학생들은 탐색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는 15세에서 24세까지이며,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취업기회 등을 고려하며,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잠정적으로 선택해 보는 시기이다. 즉 학교 생활, 여가 활동,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서 자아검증, 역할시행, 직업적 탐색을 행하는 시기로 탐색기는 다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의 세 가지 하위 단계로 나뉘어진다.

① 잠정기(15-17세): 흥미, 욕구, 능력,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며,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환상 속에서나 토의, 일, 기타 경험을 통해서 시행해 본다.

② 전환기(18-21세): 개인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훈련, 교육 등을 받고, 직업 선택에서 보다 더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며 자아개념이 직업적 자아 개념으로의 전환을 야기하게 되는 시기이다.

③ 시행기(22-24세): 개인은 직업을 갖게 되며, 그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하게 된다.

그리고 Super의 자아개념의 역할에 대한 중심 주제는 직업 선호도를 나타냄에 있어서, 한 개인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신의 사고를 정립하고, 하나의 직업 안에서 자신의 자아개념를 보완하게 된다. 또한 한 직업에 정착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 시도한다(Super, 1969). 동일시를 통한 역할놀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델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을 평가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현실검증을 하게 되고, 현실적인 직업적 자아개념의 발달을 돕게 되는 것이다.

Super(1969)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변별적, 발달론적, 사회적,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묘사했다(p. 9).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충분히 다룸에 있어서 진로발달 이론에 사회학적, 경제적 원리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Super는 진로발달 이론이라면 적어도 개인차, 직업적 능력의 유형, 부모와의 동일시 및 모델의 역할,

적응의 계속성, 생애단계, 진로유형, 발달의 지도 가능성, 발달이 개인과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 진로유형의 역동성, 직업적 만족 및 직업이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점과 같은 진로발달의 11가지 요소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진로발달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것이다. 이론에 치중한 상담자들은 진로상담의 과업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든다면, 만약 상담자가 진로 선택 과정이 단순히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 상담자는 한 개인의 진로는 자아개념을 충족시키는 수단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상당히 다른 역할로 내담자에게 접근할 것이다. 상담자는 한 개인의 진로발달과 진로의식 성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인성, 부모의 양육 태도, 발달 단계, 자아개념의 보완, 환경적 영향, 유전, 욕구 구조, 문화적인 힘, 사회경제적 수준, 흥미, 능력과 가치의 요인들 중에서 어느 것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현존하고 있는 이론의 전부는 아니지만, 주요한 몇몇의 이론, 특히 Roe, Holland 그리고 Parsons의 이론들을 살펴 보았는데 Super, Gribbons와 Lohnes, Ginzberg, Ginsburg, Axelrad 및 Herma의 연구는 진로발달의 발달적 본질을 지적했고, Gribbons와 Lohnes 뿐만 아니라 Super는 청소년의 진로탐색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및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이들 중 종합대학교 3개교, 전문대학 3개교를 무선표집하였다. 표집된 학교에서 2학년 학생 440명과 3학년 학생 460명을 무선 표집하여 모두 900명을 대상으로 진로의식 성숙검사 및 일의 가치관 검사를 실시하여, 이 중 응답이 부실한 23명을 제외한 877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표 1>과 같다.

2. 도 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의식 성숙의 수

표 1. 연구 대상

학년별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계		전 체
지역별 \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대 도 시	77	163	115	186	192	349	541
중소도시	67	118	57	94	124	212	336
전 체	144	281	172	280	316	561	877

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Crites(1978a)의 진로의식 성숙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를 사용하였고, 일의 가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Super(1970)의 일에 대한 가치관 검사(Work Value Inventory: WV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각 도구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의 가치관 검사

Super(1970)의 일의 가치관 검사(Work Value Inventory: WV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일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2주간의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으며 타당도 역시 입증하고 있다. 이 검사지는 일의 가치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와 일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15개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 및 일반 성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15개 하위 요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표 2>와 같다.

Miller(1974)는 이 검사를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외적 영역은 협동성, 경제적 보수, 독립성, 명예심, 안전성, 감독과의 관계, 환경조건, 다양성, 생활방식으로 구성되고, 내적 영역은 성취성, 이타주의, 창의성, 심미성, 지적자극, 경영관리로 구성된다. Maslow(1970)의 이론에 의하면, 외적 영역은 안전성과 소속감과 같은 인간의 욕구와 관계되는 보다 하위단계의 욕구에 속하는 가치관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내적 영역은 창의성, 자아실현 그리고 과업지향적 가치관과 같은 인간의 보다 상위단계의 욕구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진로의식 성숙 검사

Crites(1978a)의 진로의식 성숙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는 태도 척도(Attitude Scale)에 속하는 Screening Form의 A-1, A-2와 Counseling Form(B-1)의 3종류와 능력 척도(Competence Test)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Counseling Form(B-1)을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Counseling Form은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상담의 기초자료를 얻을 목적에서 제작한 것인데 Screening Form (A-1)의 50문항을 기본으로

표 2. 일의 가치관 검사의 문항 내용

하위요인	문 항	하위요인	문 항	하위요인	문 항
창 의 성	15, 16, 45	생활방식	10, 26, 35	독 립 성	5, 21, 40
경영관리	14, 24, 37	안 전 성	9, 19, 42	다 양 성	4, 29, 32
성 취 성	13, 17, 44	협 동 성	8, 27, 34	경제보수	3, 22, 39
환경조건	12, 25, 36	심 미 성	7, 20, 41	이타주의	2, 30, 31
감독관계	11, 18, 43	명 예 심	6, 28, 33	지적자극	1, 23, 38

하여 만든 7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년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로 나타났으며, Crites(1978b)는 내용타당도, 공인타당도, 구인타당도 역시 입증하고 있다. 이 척도는 진로 확정도, 진로 관여도, 진로 독립도, 진로선택의 태도, 진로 타협도의 5개 하위요인의 정도와 전체점수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진로계획에 관한 질문지

진로계획에 관한 질문지는 진로의식 성숙과 관련되는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성적, 장래의 교육계획, 부모의 학력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의식 성숙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과 학년별로 각 하위 영역에 따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여 t-검증을 하였다.

둘째,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의식 성숙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진로계획에 관한 설문지에서 학교성적의 A는 5점, B는 4점, C는 3점, D는 2점, F는 1점으로 환산하였고, 장래의 교육계획과 부모 학력의 박사는 21점, 석사는 18점, 4년제 대학은 16점, 2년제 대학은 14점, 고등학교는 12점, 중학교는 9점, 초등학교는 6점, 무학은 0점으로 환산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Roe의 직업분류 기준에 의하여 전문직·관리직(Ⅰ)은 6점, 전문직·관리직(Ⅱ)는 5점, 반전문직·소규모 관리직은 4점, 숙련직은 3점, 반숙련직은 2점, 비숙련직은 1점으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학교성적, 장래의 교육계획, 부모의 학력 및 사회경제적 수준과 진로의식 성숙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에 대한 학년별 차이

일에 대한 가치 척도와 진로의식 성숙 척도를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 보면, 학년에 관계없이 일의 내적 가치로는 성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의성과 지적자극은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의 외적 가치로는 독립성, 생활방식, 경계보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은 대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 일의 내적 가치 척도 중 성취성, 창의성, 심미성, 경영관리의 네 가지 하위요인과 일의 외적 가치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의 내적 가치 척도 중 성취성과 일의 외적 가치 척도 중 안전성, 감독관계, 환경조건, 다양성, 생활방식의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반응을 보여 주었다.

〈표 3〉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척도의 학년별 비교

척 도	요 인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t
		M	SD	M	SD	
일의 내적 가치	성취성	12.14	2.69	11.55	3.10	3.00**
	이타주의	10.28	2.33	10.33	2.33	-0.28
	창의성	10.97	2.85	10.70	2.96	1.36
	심미성	9.76	2.23	9.60	2.14	1.07
	지적 자극	10.87	2.23	10.86	2.44	0.06
	경영관리	9.66	1.99	9.57	1.89	0.64
일의 외적 가치	협동성	11.18	2.49	10.98	2.57	1.16
	경제보수	11.60	2.67	11.23	2.92	1.92
	독립성	11.70	2.62	11.46	2.89	1.28
	명예심	10.65	2.30	10.42	2.44	1.46
	안전성	11.48	2.56	11.04	2.71	2.44*
	감독관계	10.80	2.65	10.27	2.67	2.95**
	환경조건	11.40	2.57	10.90	2.80	2.77**
	다양성	11.09	2.35	10.74	2.41	2.15*
	생활방식	11.64	2.46	11.31	2.72	1.89*
진로의식 성숙	진로 확정도	9.51	3.09	9.55	3.21	-0.19
	진로 관여도	5.63	1.61	5.51	1.52	1.05
	진로 독립도	6.60	1.21	6.63	1.33	-0.36
	진로선택의 태도	7.28	1.43	7.39	1.42	-1.13
	진로 타협도	5.50	1.37	5.63	1.27	-1.46
	전체	52.77	6.66	52.99	6.71	-0.49

* p<.05, ** p<.01

진로의식 성숙 수준이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면,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 진로의식 성숙 척도의 5개 하위요인 중 진로 관여도의 평균은 다소 높았으나 나머지 네 개의 하위요인 즉, 진로 확정도, 진로 독립도, 진로선택의 태도, 진로 타협도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학년별로 살펴 본 진로의식 성숙 수준은 대학교 2학년 학생들과 대학교 3학년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진로의식 성숙 수준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대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2.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에 대한 성별 차이

일에 대한 가치 척도와 진로의식 성숙 척도를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남학생들은 일의 내적 가치 척도 중 성취성, 창의성, 이타주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들은 성취성, 지적자극, 창의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의 외적 가치로 보면 남학생은 독립성, 경제보수, 생활방식, 협동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독립성, 생활방식, 경제보수, 안전성과 환경조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일의 내적 가치에서

표 4.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척도의 성별 비교

척 도	요 인	남학생		여학생		t
		M	SD	M	SD	
일의 내적 가치	성취성	11.71	2.80	11.91	2.99	-0.98
	이타주의	10.79	2.42	10.03	2.23	4.59**
	창의성	11.17	2.83	10.64	2.94	2.62**
	심미성	9.71	2.18	9.66	2.19	0.32
	지적 자극	10.72	2.33	10.95	2.35	-1.40
	경영관리	9.62	2.03	9.61	1.89	0.05
일의 외적 가치	협동성	11.22	2.61	11.00	2.48	1.25
	경제보수	11.35	2.83	11.44	2.80	-0.44
	독립성	11.49	2.72	11.62	2.79	-0.63
	명예심	10.54	2.36	10.53	2.38	0.07
	안전성	11.17	2.67	11.30	2.64	-0.71
	감독관계	10.32	2.63	10.65	2.69	-0.76
	환경조건	10.86	2.69	11.30	2.70	-2.29*
	다양성	10.82	2.46	10.96	2.34	-0.85
	생활방식	11.29	2.53	11.57	2.64	-1.53
진로의식 성숙	진로 확정도	9.30	3.22	9.66	3.10	-1.64
	진로 관여도	5.38	1.57	5.68	1.55	-2.69**
	진로 독립도	6.41	1.26	6.73	1.26	-3.52**
	진로선택의 태도	7.44	1.44	7.28	1.42	1.63
	진로 타협도	5.70	1.30	5.49	1.32	2.22*
	전체	52.90	7.02	52.87	6.49	0.06

* p<.05, ** p<.01

여학생은 성취성과 지적자극의 하위요인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남학생은 이타주의, 창의성, 심미성의 하위요인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일의 내적 가치에서 2개의 하위영역 즉, 이타주의와 창의성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의 외적 가치에서는 협동성과 명예심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은 반응을 보여 주었으나, 환경조건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진로의식 성숙 수준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면, 남학생이 진로선택의 태도와 진로 타협도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으나 진로 확정도, 진로 관여도, 진로 독립도에서는 여학생보다 낮은 반응을 보여 주었다. 진로의식 성숙 척도에서는 3개의 하위척도 즉, 진로 관여도, 진로 독립도, 진로 타협도에서 남녀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진로의식 성숙 수준의 전체적인 평균을 살펴 보면, 남녀 학생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의 관계

성별에 따른 일의 가치 척도와 진로의식 성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성별에 따른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의 상관도

일의 내적 가치	진로의식 성숙		일의 외적 가치	진로의식 성숙	
	남	여		남	여
	r	r		r	r
			협동성	-.03	-.06
성취성	-.04	-.07	경제보수	-.07	-.09
이타주의	.01	.01	독립성	.01	-.06
창의성	.02	-.06	명예심	-.13*	-.07
심미성	-.11*	-.05	안전성	-.10*	-.09*
지적 자극	.04	-.01	감독관계	-.05	-.16**
경영관리	-.09*	-.11**	환경조건	-.14**	-.10**
			다양성	-.11*	-.04
			생활방식	-.07	-.04

* p<.05, ** p<.01

<표 5>를 보면 전체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일의 가치 척도와 진로의식 성숙 척도 간에는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일의 가치 척도들의 대부분이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여학생들의 경우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준 것은 일의 내적 가치에서는 경영관리(-.11), 일의 외적 가치에서는 감독관계(-.16), 환경조건(-.10), 안전성(-.0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성은 5%, 나머지 하위요인들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준 것은 일의 내적 가치에서는 심미성(-.11), 일의 외적 가치에서는 환경조건(-.14), 명예심(-.13), 다양성(-.11), 안전성(-.1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환경조건은 1%, 나머지 하위요인들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차이를 보여주었다.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란 진로의식 성숙이 증가할수록 그에 대한 일의 가치 요인은 줄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의 내적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가 성취성, 심미성, 경영관리에 있어서 부적 상관을 보여 주었으나, 남학생들은 심미성과 경영관리, 여학생들은 경영관리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의 내적 가치의 나머지 하위요인 중 남학생은 이타주의, 창의성, 지적 자극의 요인에서 아주 낮게 정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으나 여학생들은 이타주의에서만 아주 낮게 정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 주지는 못했다.

일의 외적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에 있어서 남녀 모두가 협동성, 경제보수, 명예심, 안전성, 감독관계, 환경조건, 다양성, 생활방식에서 부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으나, 남학생들의 명예심, 환경조건, 다양성과 여학생들의 안전성, 감독관계, 환경조건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학생들의 독립성에서만아주 낮은 정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대부분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일의 내적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에는 주로 정적인 상관과 부적인 상관이 섞여있는 반면에 일의 외적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은 대부분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4.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변인들과 진로의식 성숙 간의 관계

성별과 학년별에 의한 변인들과 진로의식 성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계획을 제외하고는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학년별의 비교에서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장래 교육계획만 진로의식 성숙과의 상관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성적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부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다. 대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과 진로의식 성숙,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의식 성숙과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른 변인들 보

표 6.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변인들과 진로의식 성숙 간의 상관도

구 분	진로의식 성숙		진로의식 성숙	
	남	여	2학년	3학년
	r	r	r	r
학교 성적	.06	.05	.01	.11**
장래 교육계획	.13*	.04	-.09*	.06
부의 학력	.03	.09*	-.01	-.06
모의 학력	.01	-.07	-.02	-.06
사회경제적 지위	.01	-.10*	-.01	-.10*

* p<.05, ** p<.01

<표 6>을 보면, 성별의 비교에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장래 교육계획에서만 진로의식 성숙과의 상관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하위요인과 진로의식 성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하위요인과 진로의식 성숙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낮은 상관을 보여 주었다. 여학생들은 부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만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독립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과는 달리 학교성적과 장래 교육

다도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학년별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었으나 2학년은 학교성적에서, 3학년은 학교성적과 장래 교육계획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으나 그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대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일의 가치관 및 다른 독립 변인들과 진로의식 성숙 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에 대한 학년별 차이

학년별에 따른 일의 가치 척도와 진로의식 성숙 척도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는 학년이 올라갈 수록 일의 내적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게 되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반면, 일의 외적 가치에 관련되어 있는 보상이나 명예 등은 그 중요성이 감소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apes & Strickler, 1975; Drummond, 1977; Gade & Peterson, 1977; Wijting, Arnold, & Conrad, 1978; Kr며, 1987; Post-Kammer, 1987). 즉, 6개의 일의 내적 가치 하위영역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취성의 영역에서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3학년 학생들 보다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이타주의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 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의 외적 가치의 9개 하위영역 가운데 대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 간에 5개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영역에서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 보다도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 보다도 일의 내적 가치 및 외적 가치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일의 내적 가치의 이타주의만이 2학년 학생들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의 가치에 있어서 직업을 하나의 자아실현이라는 이상 보다는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현실적인 생활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생들에게 직업이 생계유지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방편임을 이해하도록 하며 올바른 일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가 요청된다.

또한, 진로의식 성숙 수준이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는 진로의식 성숙 수준의 5개 하위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로 관여도를 제외한 진로의식 성숙의 4개 변인에서 대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진로 관여도 역시 학년 간의 차이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Post-Kammer(1987)와 이성진(198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로의식 성숙 수준이 학년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진로의식 성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로발달과 관계있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2.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에 대한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일의 가치 척도와 진로의식 성숙 척도 간에 차이를 살펴 본 결과에 따르면, 일의 가치 척도의 15개 하위영역 가운데 3개 영역과 진로의식 성숙 척도의 5개 하위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의 내적 가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이타주의와 창의성에서는 남학생이 모두 여학생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일의 외적 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영역인 환경조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보수에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부적인 차이를 보여준 것은 Gade와 Peterson(1977), 그리고 Post-Kammer(1987)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해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남학생들이 보수와 명예를, 여학생들이 인간관계와 사회봉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보고한 Gribbones와 Lohnes (1965)의 연구결과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회봉사, 독립성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보고한 Bridges(1989)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과 비교하여 볼 때 여학생이 명예심이나 권력, 경제보수, 독립성과 관련된 가치에서 좀 더 낮은 점수를 보여준다는 Beutell과 Brenner(1986), Herzog(1982), Lueptow(1980)의 연구결과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일의 가치에 있어서 남녀 학생들 간에 성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eutell & Brenner, 1986; Fiorentine, 1988; Lueptow, 1980).

또한 진로의식 성숙 척도 가운데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3개 영역에서 진로 관여도와 진로 독립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진로타협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ost-Kammer (1987), Herr와 Enderlein(1976), 윤희준과 이재신(198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진로의식 성숙 수준은 개인차에서 오는 것이지 성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Crites(1973)와 진로의식 성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보고한 Holland(1973), Achebe(1982)의 연구결과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도 그들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더욱 능동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남학생들이 그들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절하고 체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성별에 따른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의 관계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의 부적인 상관은 일에 대한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할 지라도 본 연구의 상관계수는 남녀 모두가 전체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일에 대한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비교적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결과는 Post-Kammer(1987), Super와 Overstreet(1960)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Pucel, Nelson, Hetzman과 Wheeler(1972)와 Walls와 Gulkus(1974)의 연구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을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여학생들은 일의 내적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에 경영관리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일의 외적 가치 척도에서는 안전성, 감독관계, 환경조건의 하위영역에서 부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다. 남학생들은 일의 내적 가치에서는 심미성, 경영관리 영역이, 일의 외적 가치 척도에서는 명예심, 환경조건, 다양성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의 가치관과 진로의식 성숙 수준은 의의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Williams(1972)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으며, 일의 가치 하위변인과 진로의식 성숙 간에는 여학생들은 안전성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나머지 다른 하위변인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Gade와 Peterson(1977)의 연구 결과 역시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일에 대한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은 진로발달에 있어서 각각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진로의식 성숙에 있어서 일에 대한 가치관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남녀 학생들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진로의식 성숙이 증가할수록 일의 외적 가치에의 비중은 줄어드는 경향과 일의 내적 가치에의 비중은 대부분의 각 요인에서 낮은 상관을 보여 준 것은, 남녀 전체로 살펴볼 때 진로의식 성숙 수준이 일의 외적 가치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나 내적 가치에서는 약간의 정적 상관이 있다는 Miller (197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의식이 성숙할수록 일의 외적 가치보다는 내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독립변인들과 진로의식 성숙 간의 관계

학교성적, 장래교육계획, 부모의 학력,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의식 성숙 간의 상관 분석에서 성별과 학년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진로의식 성숙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들은 장래 교육계획만이 진로의식 성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들은 부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진로의식 성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장래 교육계획이 진로의식 성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학년 학생들은 학교 성적은 정적 상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진로의식 성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sbury(1968)가 장래 교육계획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분석에서 상관계수가 .02인데 비하여 본 연구는 남학생들과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Asbury의 연구보다 비교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진로의식 성숙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Dillrad(1976)와 Holland(1981)의 연구결과를 여학생들과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지하고 있었고, 남학생들과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은 Gribbones와 Lohnes(1968) 및 Lee(1988)의 연구들에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진로의식 성숙

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진로의식 성숙과는 아직까지 일관성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식 성숙 척도의 대부분의 하위 영역에서는 대학교 2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으므로, 진로지도를 발달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진로의식 성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진로의식 성숙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을 동질집단 또는 이질집단으로 분류하여서 학생들의 진로계획과 교과과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로지도를 하나의 발달론적 과업에 초점을 두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일의 가치 척도의 비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전통적인 성의 역할기대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일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하여서 성에 대한 고착관념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성별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로의식 성숙 척도의 분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도 진로 관여도 및 진로 독립도에서 보다 성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로발달 프로그램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셋째, 일의 가치와 진로의식 성숙 간의 상관분석에서는 비교적 남녀 학생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성적, 장래 교육계획, 부모의 학력 및 사회경제적 수준과 진로의식 성숙 간에도 비교적 성별과 학년별 비교에서 각각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넷째, 진로발달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의 진로의식 성숙 수준과 일의 가치관, 학교성적, 장래의 교육계획, 부모의 학력 및 사회경제적 수준을 규칙적으로 평가하여서 그들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서 적절한 진로발달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이성진(1984).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정근(1989). 進路指導와 進路相談.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이현림(1977). 性別 및 年令에 따른 職業價値觀.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8, 17-24.
이현림(1994). 진로상담의 필요성과 그 방향. 한국진로상담학회. 한국진로상담학회지, 1, 1-14.
윤희준·이재신(1986). 청소년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학적인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0, 1-40.
정범모(1975).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Achebe, C.(1982). Assessing the vocational maturity of students in the East Central State of Nigeri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153-161.
Asbury, F. A.(1968). Vocational development of rural disadvantaged eighth grade boy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7,* 109-113.
Beutell, N. J., & Brenner, O. C.(1986). Sex differences in valu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8,* 29-41.
Bridges, J. S.(1989). Sex differences in occupational values. *Sex Roles, 20,* 205-211.
Carruthers, T. E.(1968). Work values and chosen careers: Note on a trial of an American Work Value Inventory with British subjects. *Occupational Psychology, 42,* 111-117.
Centers, R.(1949).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Crites, J. O.(1973).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MI.* Monterey, California: CTB/McGraw-Hill.
Crites, J. O.(1978a).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and user's manual* (2nd ed.), Monterey, California: McGraw-Hill.
Crites, J. O.(1978b).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2nd ed.), Monterey, California: McGraw-Hill.
Dawis, R. V., & Lofquist, L. H.(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Dillrad, J. M.(1976).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self-concept of suburban and urban middle and urban lower class preadolescent black ma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311-320.
Drummond, R. J.(1977). Work values and job satisfaction of young adult male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14,* 23-26.
Fiorentine, R.(1988). Increasing similarity in the values and life plan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Evidence and implications. *Sex Roles, 18,* 143-158.
Gade, E. M., & Peterson, G.(1977).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nd the vocational maturity of vocational-technical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6,* 125-130.
Ginzberg, E.(1966). *Life styles of educated wome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Ginzberg, E.(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169-176.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Gribbones, W. D., & Lohnes, P. R.(1965). Shifts in adolescents' vocational values.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44,* 248-252.
Gribbones, W. D., & Lohnes, P. R.(1968). *Emerging career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Holland, J. L.(1964). Major programs of research on vocational behavior. In H. Borrow (ed.), *Man in a world at work.* Boston: Houghton Mifflin.
Holland, J. L.(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Holland, M.(1981). Relationships between vocational development and self-concept in sixth 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228-236.
Isaacson, L. E., & Brown, D.(1993).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5th ed.). Boston, Massachusetts: Allyn & Bacon.

Kapes, J. T., & Stricker, R. T.(1975).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 in work values between ninth and twelfth grade as related to high school curriculu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 81-93.

Katz, M.(1963). *Decisions and values: A rationale for secondary school guidance.*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Krau, E.(1987). The crystallization of work values in adolescence: A sociocultur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103*-123.

Kluckhohn, C.(1962).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In J. Parsons & E.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Row.

Lee, H. R.(1988). Comprehensive career development program models for assessing the career maturit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Lueptow, L. B.(1980). Social change and sex-role change in adolescent orientations toward life, work, and achievement: 1964-1975.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48-59.

Maslow, A.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Appleton-entury-rofts.

Miller, M. F.(1974). Relationship of vocational maturity to work valu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 367-371.

Miller, D. C., & Form, W. H.(1951). *Industrial sociology.* New York: Harper & Brothers.

Osipow, S. H.(1968).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New York: Appleton.

Parsons, F. W.(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Mifflin.

Post-Kammer, P.(1987, April).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nd career maturity of 9th and 11th grade boys and girls.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65,* 420-423.

Pryor, R.(1981). Interests and values as preferences. *Australian Psychologist, 16,* 258-272.

Pucel, D. J., Nelson, H. F., Hetzman, D., & Wheeler, D. N.(1972). Vocational maturity and vocational training. *Journal of Industrial Teacher Education, 9,* 30-38.

Roe, A.(1957). Early determinants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 212-217.

Rosenberg, M.(1957). *Occupation and values.* Glence: The Free Press.

Super, D. 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merican Psychologists, 8,* 4, 185-190.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occupation.* New York: John Wiley.

Super, D. E.(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in 1988: How will it come abou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 9-14.

Super, D. E.(1970). *Manual for the Work Values Inventory.* Boston: Houghton-Mifflin.

Super, D. E.(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192-234). San Francisco: Jossey-Bass.

Super, D. E., & Overstreet, P. L.(1960). *The vocational maturity of ninth grade boys.*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Super, D. E., Starishevsky, R., Matlin, N., & Jordaan, J. P.(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Tiedeman, D. V.(1961). Decision and vocational development: A paradigm and its implication.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40,* 15-20.

Tolbert, E. L.(1974).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Upton, A. L.(1982).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guidance and counseling plan for the State of California.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0*(4), 293-299.

Veroff, J.(1969). Social comparision and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 P. Smith(Ed.), *Achievement-related motive in children.* New York: Rusell Sage Foundation.

Vondracek, F. W., Lerner, R. M., & Schulenberg, J. E.(1986). *Career development: A life-span developmental approach.*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Walls, R. T., & Gulkus, S. P.(1974, April). *Reinforces, values, and vocational maturity in adul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89 18).

Wijting, J. P., Arnold, C. R., & Conrad, K. A.(1978). Generational differences in work valu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between boys and girls across grade levels 6, 9, 10, and 12.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 245-260.

Williams, C. M.(1972). Occupational choice of male graduate students as related to values and personality: A test of Holland's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 39-46.

Zunker, Vernon G.(1994).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Zytowski, D. G.(1970). The concept of work values. *Vocational Guidance Querterly, 18,* 176-186.

韓國心理學會誌 : 相談과 心理治療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7, Vol. 9, No. 1, pp. 289-310.

A Study on the Career Maturity and Intrinsic · Extrinsic Work Values of College Students

Hyun-Rim Lee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career maturity to work values, in an effort to better understand the structure of values associated with career maturity. Two hypotheses were investigated: (1) Career maturity is positively related to differentiation of work values within subjects. (2) Career matur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rinsic work values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extrinsic work values. The samples consisted of 877 subjects, 316 males and 561 females. The subjects were administered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and the Work Values Inventory (WVI). On the basis of item content and statements in the manual of the WVI, the investigator grouped the 15 scales of the WVI into two categories: intrinsic work values and extrinsic work values. For males and females, the correlation between career maturity and work values variance was not significant. The possibility of the males being less career mature than the females was examined. Further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males and females on the WVI scales. Females were higher than males on Surrounding($p<.05$) and males were higher than females on Altruism($p<.01$), and Creativity($p<.05$). None of the intrinsic work valu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areer maturity for females, while for males two intrinsic work valu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areer maturity. The results of this lend partial support to the hypothesis that career matur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patterning of work val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unseling with females, which focuses on value clarification and differentiation, may be helpful in furthering the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Counseling which promotes the patterning of work values, may engender a more highly differentiated and clearer sense of identity. Career immaturity and identity diffusion may then develop into career maturity and a firmer sense of identity.